



석우 스님의
주주록 선행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주주 스님이 말했다.
“동쪽 벽에 표주박을 걸어놓은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지?”

問 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 東壁上掛葫蘆多少時也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달마 대사가 중국에 전하려고 했던 뜻을 말한다. 즉, 선불교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묻는 것이다. 예부터 선객들이 선 사들에게 자주 묻던 방식이다. 선사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 선의 뜻을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선사의 대답은 화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이 질문 자체가 화두가 되기도 한다. 즉, 선객들이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일까?” 하고 궁리하는 것이다.

이 질문을 듣고 정진하는 선객들이 간혹 선사를 방문하여 선사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기도 한다. 그때 답변하는 선사의 말끝에 마음이 화통하게 트이면 비로소 도(道)의 세계에 대해 전후좌우 환하게 타통하게 되는 것이다.

“동쪽 벽에 표주박을 걸어놓은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지?” 라고 되묻는 말뜻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담겨있다. 여기에 대해서 본 남자가 평을 하자면, “뺨의 머리가 꼬리를 먹어들어 가기 시작하면 스스로의 머리로 먹어버릴 날이 온다”고 하겠다.

학승이 물었다.
“네모진 것도 둥근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주 스님이 말했다.
“네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다.”
학승이 물었다.
“그럴 때는 어떠합니까?”
주주 스님이 말했다.
“네모이고, 둥글음이다.”

問 方圓不就時如何 師云 不方不圓 云 與廢時如何 師云 是方是圓

여기 일직선이 하나 있다. 직선으로 있을 때는 네모진 것도 둥근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선이 조금만 휘어지면 둥근 것도 네모도 될 수 있다. 탁 펼치면 일직선이지만 휘면 네모이고 둥근 것이다. 만물이 마찬가지이다. 텅 빈 공에서 만물이 나오면 공은 공으로 돌아간다. 우주는 빈공과 만물을 반복할 뿐이다. 그러므로 만물이 곧 빈공, 빈이 곧 만물이다. 뭐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근원'이라고 한다.

선(禪)은 언제나 근원을 가리킨다. 근원, 그것은 형체가 없고 이름이 없기 때문에 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다. 마치 허공과 같이 텅 비어 고요하다. 만물, 만물은 길고 짧은 것이 있고, 더럽고 깨끗한 것이 있으며, 부귀빈천이 있고, 늘어나고 줄어들이 있다.

만물은 곧 공이다. 네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는 것은 곧 네모이고 둥근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같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마음은 언제나 평온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도인이 상경하러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주 스님이 말했다.
“질그릇을 내놓는다.”

問 道人相見時如何 師云 呈漆器

누가 도인(道人)인가? 부처의 길을 가는 자이다. 선(禪)은 사람이 곧 부처임을 철저히 자각시킨다. 선은 사람이 이미 부처라는 것을 전제하고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므로 육조 마조 황백 조주 일제 원오 대혜 스님 등은 누가 성불(成佛)하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도인(道人)은 한번 깨닫고 바로 부처의 길을 가는 자이다. 스스로 부처임을 깨닫고 곧 부처의 행을 실천하는 자이다. 이런 자를 조주 선사는 참귀하게 여겼고, 이런 자는 대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도인에게는 마땅히 칠그릇은 내놓을 만하다고 했다. 오싹한 그릇은 예나 지금이나 고귀한 그릇이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런 걸출한 도인은 흔하지 않다. 대다수는 부처가 되려고 헛되이 기를 쓰고 있을 뿐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선경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해심밀경(解深密經)

퇴굴심 일 때는 자기 마음을 더 연마해야

유가유식에서는 전오식 곧 안식·이식·비식·설식·신식, 제육 의식, 제칠 말나식, 제팔 아뢰야식 곧 집착된 자기 등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유가수행으로서 점차오입(漸次悟入)을 내세운다. 점차로 유식에 오입한다는 것은 제보살의 경우 식의 상(相)과 성(性)에 대하여 자량위의 계위에서는 깊이 신해하고, 가행위에서는 점차 소취와 능취를 없애고 진견(眞見)을 발생하며, 통달위에서는 여실하게 통달하고, 수습위에서는 소견(所見)의 도리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습하여 나머지 장애를 없애며, 구경위에서는 장애를 벗어나 원명제가 다하도록 유정류를 제도하여 유정들을 다시 유식의 상과 성에 오입토록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오입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자량위(資糧位)는 대승의 순해탈분(順解脫分)을 닦는 것인데 곧 지전의 주·행·회향의 30심에서 불도의 자량을 쌓아가는 지위이다. 여기에서 유정을 위하여 해탈을 추구하므로 순해탈분이라 말한다. 자량이란 보시바라밀로부터 선정바라밀에 이르는 복덕 및 반야바라밀에 이르는 지혜의 선근을 가리킨다. 때문에 자량위에서는 복덕과 지혜를 닦아 지혜를 성(性)으로 삼는 것을 지(智)라 하고, 그 밖의 경우를 복(福)이라 한다.

유식에서는 제팔아뢰야식 등으로 자기 설정 유식에 오입육은 식의 상(相)·성(性)에 결합 '자량'은 육바라밀 관통한 지혜의 선근 지칭

이 경우 물리쳐야 하는 잠재적인 번뇌 가운데 번뇌장은 변계소집을 실어로 집착하는 살가야견(薩迦耶見)을 무엇보다 최고의 것으로 삼는다. 곧 128의 근본번뇌와 그로부터 유추되는 모든 수번뇌(隨煩惱)인데, 이것은 모두 유정의 몸과 마음을 장애하여 열반을 장애하기 때문에 번뇌장이라 한다. 또한 소지장은 변계소집을 실법으로 집착하는 살가야견을 무엇보다 최고의 것으로 삼는다. 곧 견(見)·의(疑)·무명(無明)·애(愛)·에(恚)·만(慢) 등인데, 이것은 소지(所知)의 경(境)과 무전도(無顛倒)의 성(性)을 뒤엎어 보리를 장애하기 때문에 소지장이라 한다.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삼종의 퇴굴심을 극복하는 수행을 한다.

곧 첫째는 무상정등보리는 광대하고 심원하다는 말을 듣고 곧 퇴굴심이 일어날 때는 이미 대보리를 터득한 사람을 찾아가 마음을 연마하고 용맹심으로 퇴굴하지 않는다.

둘째는 보시 등의 바라밀다 수행이 대단히 어렵다는 말을 듣고 퇴굴심이 일어날 때는 자기의 마음에 보시 등의 바라밀을 닦는 즐거움을 생각하여 마음을 연마하고 용맹심으로 퇴굴하지 않는다.

셋째는 제물의 원만한 전의(轉依)는 증득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말을 듣고 퇴굴심이 일어날 때는

자 남의 추선(勸善)을 자기의 묘인(妙因)과 비교하여 자근심을 지니고서 자심(自心)을 연마하고 용맹심으로 퇴굴하지 않는다.

가행위(加行位)는 대승의 순결택분(順決擇分)을 닦는 것인데 곧 30심의 끝에서 견도(見道)에 들어난(獲)·정(頂)·인(忍)·세제일법(世第一法)의 사선근방편을 가행하는 지위이다. 여기에서 네 가지 심·사(尋·思) 및 네 가지 여실지(如實智)를 순결택분이라 하는데 결택분이란 깨진다는 뜻이다. 곧 진실한 결택분을 수습해 나아가서 견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가행위라 말한다. 그리고 난·정·인·세제일법은 네 가지 심·사 및 네 가지 여실지에서 각각 초위와 후위에 위치한다. 네 가지 심·사는 명(名)·의(義)·자심(自心)·차별(差別)로서 가(假)로는 있지만 실(實)로는 없다고 심·사하는 것이다. 바로 이 네 가지조차도 식(識)을 여의고 또 식도 유가 아닌 줄 아는 것을 여실지라 말한다.

이 경우 사선근방편 곧 사정(四定)에서 난위(煖位)는 명득정(明得定)에 의하여 심·사를 내어 소취(所取)가 없다고 관찰하는 것이다. 정위(頂位)는 명증정(明增定)에 의하여 심·사를 내어 소취가 없다고 관찰하는 것이다. 인위(忍位)는 인순정(印順定)에 의하여 여실지를 내어 능취와 소취가 공하다고 터득하는 것이다. 인위에서는 능취의 공만을 터득했지만 여기 세제일법에서는 이공을 모두 터득하여 반드시 철나에 견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간이라 말한다.

통달위(通達位)는 제보살의 주처인 견도로써 심지의 각 지마다 입(入)과 주(住)와 출(出)의 3심이 있는데 그 가운데 초지의 입심에서 이공무아의 도리를 통달하는 지위 곧 견도이다. 통달위는 이론적으로 깨침에 통달한다는 뜻으로 근본무분별지의 세 가지 뜻을 아는 경지이다.

수습위(修習位)는 제보살의 주처인 수도(修道)인데 초지의 주심부터 제심지의 출심 곧 등각(等覺) 사이에서 거듭 묘관을 수습하여 나머지 장애를 끊는 지위 곧 수도이다. 수습위는 몸으로 깨침을 체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지의 심승행을 터득하는데, 이 경우 심지는 모든 유위와 무위의 공덕을 선행하여 자성으로 삼아서 수행으로 말미암아 뛰어난 의지처가 되고 모든 것을 생장시키기 때문에 지(地)라고 말한다. 또한 심바라밀을 성취한다.

경위(究竟位)는 무상정등보리에 주하는 것으로 곧 구경에 단혹증리(斷惑證理)하는 지위로서 무학도(無學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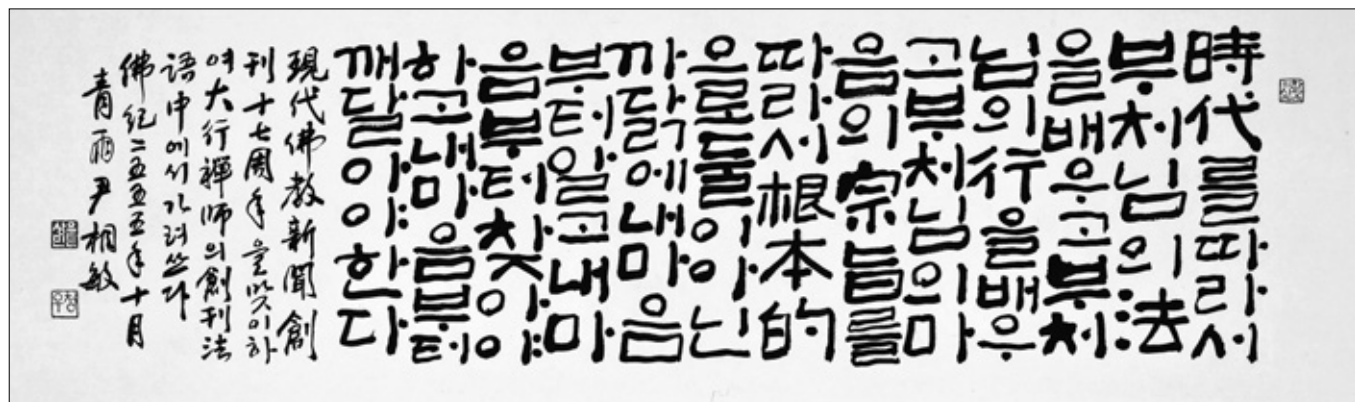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김호국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윤상민의 서화산책 대행 스님 법어



본 글은 대행 스님이 1994년 10월 2일 범행제회에서 설한 법문을 추린 글이다. 대행 스님은 법문에서 “한국의 불교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세계 어디서든지 그 자리에 앉아서 곧바로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현대불교 신문을 출범시킨 뜻을 밝혔다.

내 마음부터 깨달아야

시대를 따라서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부처님의 행을 배우고 부처님의 마음의 종지(宗旨)를 따라서 근본적으로 돌아 아닌 깨달음에 내 마음부터 알고 내 마음부터 찾아야 하고 내 마음부터 깨달아야 한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제17주년을 맞이하여 대행선사의 창간법어중에서 가려쓰다 불기이오오년 10월 청우 윤상민

참선자, 수행자, 수험생, 학업자

소원 성취의 옷

침향은 향중의 향, 부처님의 향으로 알려지며, 한의학적으로도 유명하고 중생제도로서 탁월한 수행자의 하늘이 내린 천연향이며 향기를 내는 신비한 물질이다.

사람의 체온에 해당하는 36도 이상의 열을 받을 때부터 그 기운을 발하기 시작하며, 기를 발해 몸 속의 나쁜 기를 내려주고 막힌 곳을 뚫어준다. 또 기의 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사기(邪氣)를 몰아내며, 머리를 맑게 해주어 학업자, 사업자, 참선과 수행으로 성불할 수 있다.

삼각기법을 통하여 참선과 수행자의 중심이 되어 기가 가장 많이 모여지며 심신이 안정되어 소구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산스크리트어)는 일체의 소망을 성취케 하고 복을 받게 하며, 무적이며, 일체 중생이 윤회하는 삼유(三有)의 길을 청정케 하는 것이다.

글자 하나 하나마다 금박과 침향이 무한한 기운으로 변하여, 부처님의 자비로 소원 성취 하십시오.

모든 보시금은 대불전에 쓰여집니다.

성불하십시오.

우 능 시 031)898-5698 / 010-2589-7280

대학입시 수능시험격 발전 *보시금 : 95,000원
우체국 104604-01-005265 [예금주: 우능사] / 부처님 전에 축원하여 발송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산스크리트어)

성표등록 40-2011-0049176 / 디자인등록 30-2011-0038559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압박성 등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풍동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 523-0708 박현숙 원장
네이버, 다음에서 '초록원월빙'을 검색하세요.